

전자부품 업체 근로자 2명 독성 간염·피부 발진 증세

광주 평동산단, 노동청 사실 확인 조사

광주지역 한 실리콘 및 전자부품 전문생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잇따라 급성 독성간염과 피부 발진(發疹) 증세를 호소해 노동청이 사실 확인 조사를 나섰다.

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주)성진 케미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광주 C대 휴학생 이모(20·광주시 북구 두암동)씨가 최근 급성 독성간염과 피부 발진 증상을 앓아 조선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광주 J대 휴학생 김모(20·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도 지난 7월 중순께 이씨와 같은 증세를 보여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컴퓨터·TV·휴대전화 등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실리콘 시트'(silicon sheet)를 만드는 이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했다.

이씨는 입사 후 실리콘 코팅실 등에서 '실리콘 시트' 제작에 필요한 실리콘 운반작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실리콘 코팅실에서 근무 중 같

은 증세를 보였다.

실리콘 코팅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로 분류된 'TCE'(trichloroethylene·트리클로로에틸렌)와 실리콘을 혼합해 '실리콘 시트'를 만드는 곳이다.

노동청은 이씨 등이 'TCE' 중독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리콘 코팅실 근무자 24명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할 것을 회사 측에 명령했다. 또 'TCE' 등 저장용기 설비와 보관상태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작업 환경조사에 착수했다.

조선대 이철갑 산업의학과 교수는 "입원 중인 이씨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TCE'로 인해 급성 독성간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예민한 사람의 경우 급성 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TCE'를 사용할 땐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한 뒤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보호안경·방진복·방진 마스크·장갑 등 특수 보호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많지만, 최근까지 이러한 증세를 호소한 사람은 단 한 명

▲ TCE(Trichloroethylene)=냉동제나 세정 용매로 사용되는 무색 액체의 유해화학물질. 농도 200~300ppm에서 착시·구토·가슴 통증·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다. 고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며, 폐에도 자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무의식, 경련 등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지며,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2006년 TCE 중독으로 4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도 없었다"며 "병원 진단서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성진 케미칼은 연 1회 실시하는 광주시의 작업장 환경 등에 대한 정기점검에서 지난 5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이은미기자
golee@kwangju.co.kr



쇼핑 카트를 밖으로 끌고나가지 못하도록 광주 삼성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설치된 '유출 방지 기둥'. 광주 시내 대형 할인점들은 최근 카드 분실이 잇따라 도난 방지를 위한 갖가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쇼핑 카트는 두고 가세요”

대형 할인점들 도난 피해 잇따라 '속앓이'

광주지역 대형 할인점이 고객들이 몰래 가져가는 쇼핑 카트(shopping cart)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광주점의 경우 최근 재물조사 결과 올 초 1천340대인 카트가 200대나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대당 10만1천원인 가격을 감안하면 2천2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롯데마트 상무점도 매장 내 비치된 920대(대당 12만1천700원) 중 30여 대를 분실 당해 365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삼성 홈플러스 동광점에서는 1천350대(대당 16만원) 가운데 40대를 잃어버렸다.

카드 분실이 잇따라 신세계 이마트 측은 아르바이트생 8명을 고용, '쇼핑 카트 도난 방지팀'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매

장 6층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 영업시간(오전 10시~자정)이 끝나는 대로 수거해 보관한다. 삼성 홈플러스는 매장 입·출구에 직경 25cm·높이 40cm 크기의 쇼핑 카트 '유출 방지 기둥'을 40c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해 도난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기가 불편한 고객들이 구입한 물건을 카트에 싣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차칫 고객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저소득층 학생들 방과 후 학습비 6,500여만원 유용 의혹

광주 동구 청소년수련관

광주 동구 청소년 수련관 측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에 써야 할 예산 6천500여만원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광주시가 반박을 지원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1억5천만원 중 일부가 관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뒤 사용돼 관련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수련관 P관장이 지난해 부터 ▲기초학습 지도 ▲숙제지도 ▲심화학습 ▲미술 ▲풍물 등의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업 시간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에게 이점으로 지급, 강사 명의 통장에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천5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 관장은 올해에만 15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직원과 강사 25명의 계좌를 거쳐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P관장은 친구에게 900여만원을 빌려주고 신용카드 대금 200여만원을 갚는 등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P관장은 이에 대해 “강사들 계좌를

통해 6천500만원의 예산을 임의의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수련관 운영에 사용했다”며 “수련관 운영상 당좌 대월(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데 법인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아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고, 빌려준 돈도 일부(500만원)는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감시 감독 기능이 허술해 다른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유사한 공금 유용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대포통장 사기범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 단독 김태형 부장판사는 3일 노숙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뒤 웃돈을 받고 전화 사기범(일명 보이스코)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와 박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속칭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사기범들에게 판매해 허위 납치극을 통한 금품 편취 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초 서울 강남구 지하철의 부근에서 A씨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A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사기범들에게 8만원에 판매하는 등 5명의 이름으로 19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차 단속 경찰 차에 매달고 도심 500여m ‘광란의 질주’

광주 서부경찰 3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3일 불법주차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조모(30·화순군 화순읍)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경비업체 직원인 조씨는 지난 2일 낮 12시10분께 광주 서부경찰청장 소속 안모(21) 의경과 불법주차로 시비를 벌이다 횡단차에 들이받고 매달려 500여m를 시속 60km로 질주한 혐의다.

조씨는 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차

량을 제지하던 한모(21) 의경을 차쳐 들이받은 후 달아나다 추격에 나선 서부경찰서 소속 임모(40) 경사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조씨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최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3주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02-722-1282 www.ikpc.or.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복지콜센터



다들 권하는 신제품 KCC
DS건설(주) KCC-청도, 연수, 동해, 대곡
KCC항오, 시스템항오, 생산, 시공
KCC인프라, KCC-에너지, KCC-물리, KCC-화학
(주)본드나리 KCC-실리콘, KCC-대리점
실리콘, 방수제, 접착제, 타이프

내비게이션 출처 어머니에 선물
○~고교생이 흠뻑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어머니가 제조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는 바람에 달미.
○~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교고 1년 J(15)군은 지난달 22일 밤 9시께 서구 금호동 호반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임모(43)씨의 렉스턴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떼어내 어머니(45)에게 선물했다는 것.
○~J군은 물건의 출처를 묻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주웠다”고 말했다지만, 어머니가 내비게이션 제조회사의 업그레이드(upgrade) 사이트에서 기기 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바람에 범행이 탄로.
○~J군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가져온 내비게이션이 도난품인 줄 알아보기 위해 업그레이드 사이트를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神의 전극한 사랑을 받은 땅 계림!!

광주에서 가장 멋있는 관광 코스인 계림!!

9월 21일 원주 - 계림 99,000 1,599,000 1,700,000	9월 25일 원주 - 계림 799,000 1,799,000 1,799,000	9월 29일 원주 - 계림 - 이문 - 원천 1,199,000 1,799,000 1,799,000
---	--	--